2025
제1권

해 양 수 산 ODA 리포트

목차

①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② 주요 의제
③ 전문가 기고
④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⑤ 주요 행사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01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동향

미국, SDGs 이행 불확실성 증가 예상

- 미국은 2023년 800억 달러의 해외 원조 예산을 집행하는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미국의 국제개발정책은 전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1)]
-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약속하며, 빈곤, 식량, 보건 분야 등 국제 개발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2)] 하지만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조치에 따라 기존에 USAID가 지원하던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미국 내·외부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
- 이와 더불어 미국은 지난 3월 미국유엔대표부(United State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를 통해 2030 어젠다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참여를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경제사회 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소속 에드워드 하트니 공사참사관은 담화 중에 SDGs 및 2030 어젠다의 참여는 현재 미 행정부의 정책 논조와 배치된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들며, "향후에도 미국은 SDGs, 2030 어젠다 참여에 대해 재고 없는 거절 의사를 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4)]
- 트럼프 행정부가 SDGs의 주요 목표 이행을 반대하는 독자 노선을 택함으로써, 향후 미국 및 타 공여국의 SDGs 참여 및 이행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임예섭 연구원
yslim42@kmi.re.kr

1) ForeignAssistance.gov, 2023-Disbursement, https://www.foreignassistance.gov/(검색일 2025.03.28.).
2) The White House Speeches and Remarks(2015.9.27.), Remarks by the Preside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9/27/remarks-presid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검색일 2025.03.28.)
3) AP News(2025.2.11.), Volunteers are now tracking what's already been lost in the USAID freeze, https://apnews.com/article/usaid-foreign-aid-freeze-international-development-325c807f4f3930adbaa5c42dfef69c69 (검색일 2025.03.20.)
4) United State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2025.3.4.), Remarks at the UN meeting entitled 58th Plenary of the General Assembly, https://usun.usmission.gov/remarks-at-the-un-meeting-entitled-58th-plenary-meeting-of-the-general-assembly/ (검색일 2025.03.20.)

프랑스, 원조 예산 삭감 및 해초 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 프랑스 상원은 지난 1월 16일 2025년 해외 원조 예산 40% 삭감안을 표결에 부쳤고, 1월 31일 공동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 감액안에 통과됨에 따라, 320억 유로에 해당하는 해외 원조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21년 해외 원조 예산을 1인당 GNI 대비 0.7%로 증액안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에 배치되는 조치이며, 프랑스 국내 많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였다.[5)]
- 프랑스는 DAC 가입국 중 미국, 독일, 영국 및 일본 등과 함께 주요 공여국 중 하나로 지목되는 국가인 만큼, 미국에 이은 프랑스의 대외원조 예산 삭감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기여 관행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프랑스 생태 전환, 생물 다양성, 임업, 해양 및 수산부의 아녜스 파미에 루나쉐 장관은 지난 2월 파리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에서 프랑스의 해초 생산 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프랑스의 이번 로드맵은 식량, 산업,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도전에 새로운 혁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6)]
- 프랑스는 EU의 주요 해조류 생산국으로서, 해조류 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가 이행될 시 프랑스의 해양수산 ODA 기조도 이에 맞추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임예섭 연구원
yslim42@kmi.re.kr

5) RFI(2025.2.5.), France’s proposed budget cuts set to slash overseas development aid, https://www.rfi.fr/en/france/20250205-france-proposed-budget-cuts-slash-overseas-development-aid-coordinationo-sud(검색일: 2025,03.20)
6) Weareaquaculture(2025.2.27.), France unveils roadmap to boost seaweed and algae industry, https://weareaquaculture.com/species/seaweed/france-unveils-roadmap-to-boost-seaweed-and-algae-industry (검색일: 2025.03.20.)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어업 위기 지속

-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후 팔레스타인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가자지구에 정박되어 있던 조업용 보트 대부분이 파괴됨으로써 해안에 고립된 어민들은 생존을 위해 폐냉장고 문으로 보트를 만들어 조업을 이어나가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7)]
-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고립된 어민들은 연안에서 피격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조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하면 200명 이상의 어민이 사살당했으며, 여전히 이스라엘의 피격 대상이 되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8)]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따르면, 2022년 전쟁 이전 수준과 대비 2023년 10월-2024년 4월의 일일 조업량이 7%가량 감소하였으며, 175만 달러의 손실이 야기되었다. FAO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이전 가자지구 어촌은 등록된 어선원 4,200명을 포함하여 6,000명 규모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직간접적으로 약 11만 명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자지구 연안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단백질,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거주민들은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해졌다.[9)]
- 최근 미국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통해 이스라엘에 약 40억 달러의 규모의 군사 원조를 이행할 것을 공표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난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주민의 군사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10)]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임예섭 연구원
yslim42@kmi.re.kr

7) Al-Jazeera(2025.3.10.), Boatless in Gaza: Using old fridge doors to catch fish, https://www.aljazeera.com/gallery/2025/3/10/boatless-in-gaza-using-old-fridge-doors-to-catch-fish(검색일 2025.03.28.)
8) +972 Magazine, 'Anyone who goes near the water risks his life. But if we leave the sea, we die', https://www.972mag.com/gaza-fishing-war-siege/(검색일 2025.03.28.)
9) FAO 보도자료(2024.12.24.), Reviving Gaza's fishing sector hinges on restoring peace and safe access to the sea, https://www.fao.org/newsroom/detail/reviving-gaza-s-fishing-sector-hinges-on-restoring-peace-and-safe-access-to-the-sea/en(검색일 2025.03.28.)
10) Rueters, Rubio signs declaration to expedite delivery of $4 billion in military aid to Israel, https://www.reuters.com/world/rubio-signs-declaration-expedite-delivery-4-billion-military-aid-israel-2025-03-02/(검색일 2025.03.28.)

해양 경제 및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논의[11)]

- 2025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유엔무역개발회의(U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주최로 열린 제5차 UN 해양 포럼에는 80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해양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무역 및 경제 정책의 조화를 논의하였다. 본 포럼은 UNCTAD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의 개막 연설로 시작되었으며 "번영과 지속 가능성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포럼은 5개의 주제별 세션(무역 동향, 해양 부문을 위한 국가적으로 정해진 기여(NDCs), 남남 무역, 혁신적인 해양 제품, 블루 파이낸스)으로 진행되었다.
- 해양 경제는 다른 산업 부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2.5배 성장한 반면, 글로벌 경제는 1.9배 성장에 그쳤다. 2023년 해양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규모는 2.2조 달러로 기록을 갱신했으며 이는 COVID-19 팬더믹 이후 강한 회복을 나타낸다.
- 남남 무역에서 어업 수출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3% 증가한 190억 달러에 달하며, 가공된 어업 제품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89% 증가해 230억 달러에 달했다. 해양 기반 플라스틱 대체 제품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108억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 그러나 해양 경제는 거버넌스 격차와 환경 및 기후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을 받고있다. 해양 경제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11%를 차지하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중에서 가장 적게 자금이 조달된 분야이다. SDG 14(해양 생태계 보호)는 연간 1,75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2010년 이후 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또한, 220억 달러의 해양수산 보조금은 여전히 어획량을 고갈시키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번 포럼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정책 조율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UN 해양 회의 및 블루 경제 포럼 등에서 이러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조적인 투자 확대, 정책 조화,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개발도상국 간 협력과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공동 번영의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양희 연구원
yanghee.kim@kmi.re.kr

11) UNCTAD News(2025.3.6.), 5th UN Ocean Forum,
https://unctad.org/news/5th-un-ocean-forum-how-trade-and-innovation-can-unlock-blue-economy
(검색일: 2025.03.20.)

필리핀과 동티모르의 해변 모니터링과 해양 플라스틱 정책[12)]

- 필리핀은 2019년에 27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킨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불완전한 폐기물 관리와 인프라 부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전체 폐기물의 40%만이 적절히 처리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2021년에 해양쓰레기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for Marine Litter, NPOA-ML)을 발표하고 다양한 ODA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 동티모르 필리핀보다 작은 국가지만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도시 인구의 20%만이 적절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폐기물을 불태우거나 개방된 장소에 버리고 있다. 동티모르는 "제로 웨이스트 동티모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ODA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필리핀과 동티모르는 유엔환경계획(UNEP), GESAMP(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지침을 따르며 한국의 해양 플라스틱 모니터링 방법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DA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해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며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현장 기반 ODA 사업의 실행이 병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기반의 접근과 지역사회 참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해양수산 ODA는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 국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양희 연구원
yanghee.kim@kmi.re.kr

12) PEMSEA News(2025.2.28.), From Data to Solutions, https://www.pemsea.org/resources/news/data-solutions-how-beach-monitoring-philippines-and-timor-leste-helps-shape-policies(검색일: 2025.03.20.)

해양 거버넌스 및 해양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13)]

- 노르웨이 정부가 출범한 Ocean for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엔법률국(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산하 해양법 및 해양사무국(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DOALOS)과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ORAD)은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를 구축하기 위한 4년간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본 사업은 ① 지역별 협의(Regional Consultations), ② 국가별 해양 거버넌스 분석(National Ocean Governance Analyses), ③ 맞춤형 교육 과정 제공(Customized Training Courses), ④ 해양 거버넌스 기술 지원(Ocean Governance Studies Technical Assistance)을 포함하여 총 4가지의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적 협의는 해양 관련 지역 간 정부기구(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RIGOs)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해양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한다. 국가별 해양 거버넌스 분석은 수여국의 법률 및 제도적 틀을 분석하여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및 관련 규범의 일관된 이행을 지원하고 각 국가의 전략적 중요 해양 부문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추가적인 역량강화 필요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도출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맞춤형 교육 과정 제공은 국가 및 지역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기초 및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카리브해 지역, 태평양 지역(소규모 도서국 대상), 아세안(군도 국가 대상), 아프리카 국가 등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해양 거버넌스 기술 지원은 연구 결과를 정책 및 법률 체계 강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각 국의 해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사례로써 개발도상국의 해양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 규범 기반의 해양 거버넌스 정비, 지역 및 국가 맞춤형 전략, 현장 중심 교육과 기술 지원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일 요소의 개선이 아닌 법, 제도, 인적 역량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해양 분야 ODA의 방향성 또한 이런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양희 연구원
yanghee.kim@kmi.re.kr

13) UN, Norad Programmes of Assistance, https://www.un.org/oceancapacity/sites/www.un.org.oceancapacity/files/files/Projects/Norad/OGS/2024_project_summary_for_website.pdf(검색일: 2025.03.19.)

02 주요 의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 결과와 협력 방향

- (배경)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당사국 총회(Conferenc of Parties, COP) 속개 회의가 2025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다.[1)]
  - 이번 속개 회의에는 196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했다.[2)] 이번 속개 회의는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Monitoring framework for the KMGBF)' 등 미합의 의제에 대해 당사국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 당사국은 자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 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GBF)의 이행을 위한 국가적 진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공통 지표에 대해 합의했다.
  - (자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당사국은 2030년까지 모든 재원으로부터 연간 최소 2,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는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공공 자금, 민간 재원, 다자개발은행, 혼합 금융 및 기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3)]
  -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당사국은 COP15에서 채택된 KMGBF에 대한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동 기본계획은 23개 실천목표와 4개 목표[4)]에 대한 국가별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한다.[5)]
  -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국가보고서 작성에 모든 당사국이 통일된 지표인 핵심지표와 이를 보완하는 보완지표를 사용해 이행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UNEP News(2025.2.1.), Key decisions agreed as CBD COP16 concludes in Rome, https://unep-wcmc.org/en/news/key-decisions-agreed-as-cbd-cop16-concludes-in-rome(검색일: 2025.3.15.).
2) 환경부 보도자료(2025.2.28.),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폐막, https://www2.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6642&pWise=sub&pWiseSub=C4(검색일: 2025.3.14.).
3) UNEP(2025), pp. 2-4.
4)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에 따르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2050년까지의 목표(Goals-4개: ①생태계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②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③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유, ④2050비전 및 GBF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23개:①지구 모든 육지와 해양에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중요 지역의 손실 2030년까지 제로화, ②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30% 복원, ③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 최소 30% 보호지역 관리 등),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5) UNEP(2024), pp. 6-32.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 지표[6]〉

구분		핵심지표	보완지표
목표	A. 생태계 보호 및 유지	A.1 생태계 적색목록 A.2 자연생태계 면적 A.3 적색목록 색인	A.CY.13 해양 건강 지수
실천 목표	실천목표 5	5.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	5.CY.1 내륙어업 위협지표 5.CY.4 해양관리협의회(MSC) 어류 인증 어획량
	실천목표 8	8.b 해양 산성화로 인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국가 수	7.1 해양 부영양화 지수 8.CY.4 평균 해양 산도(pH)
	실천목표 9	9.1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인한 혜택	5.CT.2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기구의 이행 정도 5.CY.3 적색목록지수(어업영향)
	실천목표 20	20.b 기술 및 역량강화 개발 촉진 조치를 취한 국가 수	D.CY.2 해양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게재 논문 수 D.CY.3. 해양기술 연구에 할당된 총 연구예산 비율

- (칼리 기금) 이밖에 속개 회의에서는 칼리기금(Cali Fund)도 출범했다. 동 기금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표인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사용의 공평한 이익 공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7]

•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해양 생물다양성 ODA를 증가시키고 관련 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 이번 회의는 단순한 재정 동원 계획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손실을 되돌리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이와 관련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공통적인 지표를 마련했다.
- 지난 2024년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COP16에서는 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ODA 사업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그린 ODA 분야는 19.6%로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생물다양성 ODA사업은 전체 양자사업 중 4.7%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8]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도국 대상으로 해양 생물다양성 ODA 사업 발굴 및 연계로 협력 국가를 지원하고 국익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jy1@kmi.re.kr

6) UNEP(2024), pp. 6-32.
7) UNEP(2025.2.24.), The Cali Fund launches in the margins of the resumed session of COP16, https://www.cbd.int/article/cali-fund-launch-2025(검색일: 2025.3.15.)
8) 관계부처 합동(2021), pp. 3-4.

03 전문가 기고

ODA 질적 성과 제고와 해양수산 ODA 방향성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ODA는 양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에서 의결된 25년 ODA 총규모는 6조 5,010억 원이며, ODA 수행기관은 총 41개, 사업 수는 1,928개로 보고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참여 기관과 사업 수는 큰 변동은 없는 반면, 규모 면에서는 22년 대비 11.4% 증가에 이어 23년도 3.8% 증가 된 규모입니다. 이러한 ODA 규모 확대는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약속의 이행이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개발 협력 지형에서 요구되는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확대 추세에서 ODA 질적 성과 제고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커지고 있습니다. 즉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 성과 제고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여기서 ODA 질적 성과 제고란 무엇이며, 질적 성과 제고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안들이 고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질적 성과 제고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세안 등을 대상으로 그간 우리나라 정부가 구축한 맞춤형 지역 전략을 통한 ODA 효과성 제고, 사업 거버넌스의 혁신을 통한 ODA 추진기반 강화, 그리고 사업 방식의 변화 노력 즉, ODA 사업의 대형화, 패키지화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등으로 표현됩니다.

질적 성과 제고 관련 주요 현안을 보면 우선,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이슈입니다. 이는 개발협력 전략과 실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국가협력전략(CPS)의 기반 사업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과 사업간 유기적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장 기반 협업체계의 강화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ODA 사업 패키지를 통한 대형화입니다. 예를 들어, 유무상 및 섹터 연계 등 다양한 패키지 모델 구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구성된 패키지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1년부터 정부 부처, 공공기관, 협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전략협의회를 통해 8개 패키지를 구성했으며, 이후 다양한 유무상 사업의 종합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 기획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과 제고 관련 세 번째 이슈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정부 부처와 재외공관 그리고 ODA 시행기관 등 간의 협업 시스템 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과 제고를 위해 ODA 집행과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의 내실화·질적 성과 제고와 협업 방식 혁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ODA 양적 확대, ODA 내실화 및 질적 성과 제고의 강조 추세 속에서 해양수산 ODA는 어떠한 전략과 방향성으로 대응하며 그 영역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지역전략, 인태전략 등 상위 전략을 기반으로 해양수산 ODA 사업 지역과 대상의 특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태평양 도서국에 적용하고 있는 해양수산 ODA 전략과 사업 범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험과 니즈에 특화된 해양환경·해양관광 부문 시그니처 사업을 기획, 발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ODA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해양수산 ODA 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방향성 제시를 담당하는 해수부와 ODA 사업 발굴, 실행 에이전시 기관 유기적 협업, 소통체계가 요구됩니다. 협업구조 강화를 위해 ODA 및 해양수산 섹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 컨설팅 그룹의 상시적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성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한 재외공관, 해양수산 이해관계 기관, 더 나아가 국제기구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성화된 기존 사업 방식과 내용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즉, ODA 사업의 대형화, 패키지화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의 추세를 해양수산 ODA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교육, 단기 연수·기술 이전 및 역량개발 프로젝트 틀에서 벗어나 유무상 인프라 ODA 및 보건, 환경,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ODA 섹터와 연계될 수 있는 '해양수산 중장기 ODA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증가와 함께 해양수산 ODA 규모의 확대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과 내실화는 이해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 중장기 ODA 맞춤형 전략 형성과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지역과 부문 발굴, 국제 네트워크 형성, 현장 ODA 거버넌스 강화, 해양수산 ODA 패키지 사업형성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김성규 센터장

〈주요 이력〉

현)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센터장
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전)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회장
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연구원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04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동아시아 해역 해양플라스틱 저감 사업(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1)]

▶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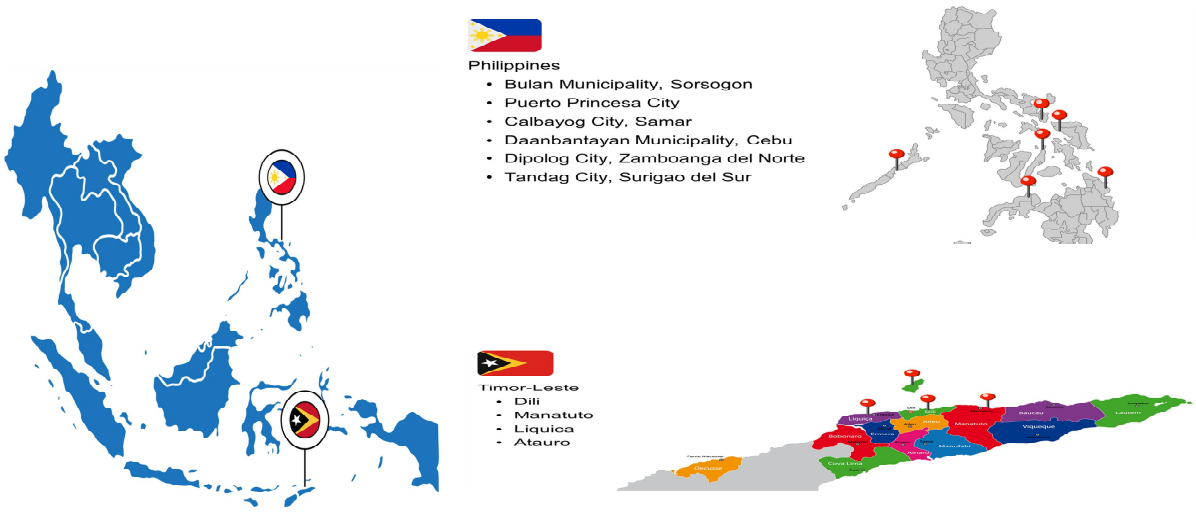
- 필리핀(불란, 푸에르토 프린세사, 칼바요그, 단반타얀, 디폴로그, 딴다그), 동티모르(딜리, 마나투토, 리퀴샤, 아따우로) 10개 사업지역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 사업 개요

- 사업 지역 내 해양플라스틱 관리 지역 거버넌스 강화,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바닷가 쓰레기 모니터링, 해양플라스틱 관련 인식증진,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
  - 사업기간: 2023~2028년
  - 사업비: 120억 원

▶ 사업 대상

- 필리핀 6개 및 동티모르 4개 지자체



1)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 추진현황(2023~4년)

〈2023년〉

- 1월: 해양수산부-PEMSEA 사업 추진 협정 체결
- 1~7월: 사업계획 마련 및 착수보고(7월)
- 8월: 필리핀 사업지역 해양플라스틱 기초현황 조사 착수
- 10~11월: 필리핀, 동티모르 사업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필리핀 지역 플라스틱 특성 분석
- 12월: 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4년〉

- 1월: 필리핀 6개 사업지역 해양플라스틱 기초현황 조사 보고서 작성
- 3월: 필리핀 4개 사업지역 MEP(Marine Environment Protector) 활동 추진

  * 세계 해양의 날(6월), 국제 연안 정화의 날(9월) 맞이 대규모 바닷가 정화 활동
- 1월: 바닷가 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및 바닷가 쓰레기 모니터링 실시(분기별)
- 4월: 1차 LEP(Learning Exchange Program) 실시
- 5월: 필리핀 사업 지역 대상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제1차 워크숍 및 자문회의(7월), 제2차 자문회의(11월)
- 11월: PEMSEA-Timor-Leste MOU 체결
- 12월: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관련사진

착수보고회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플라스틱 특성 분석

MEP 워크숍 및 LEP

연안정화 활동 및 모니터링

MOU 체결 및 운영위원회

▶ 향후 계획(2025~2028년)

- 사업지역별 해양플라스틱 관리 중장기(10년) 계획 마련
- 사업지역 내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 및 모범사례 발굴
- 사업지역 내 기존의 해양플라스틱 감축 활동 지원을 위한 SGP(Small Grant Program) 운영
- 바닷가 모니터링, MEP 활동, 해양플라스틱 관련 인식 증진 및 교육 활동
- 국내외 워크숍 및 국제회의에서 동아시아 해역 해양플라스틱 ODA 사업 홍보

▶ 기대효과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아국 약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아시아 해역은 전 세계에서 해양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한 해역으로 동 해역에서의 해양플라스틱 ODA 수행으로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입지 제고 기대
-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을 필리핀, 동티모르의 해양환경 개선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동 학술연구를 통한 활발한 교류 활동도 기대
- 특히 동 사업은 필리핀, 동티모르의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양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필리핀과 동티모르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 가능

PEMSEA 김훈근 Senior Manager
hkim@pems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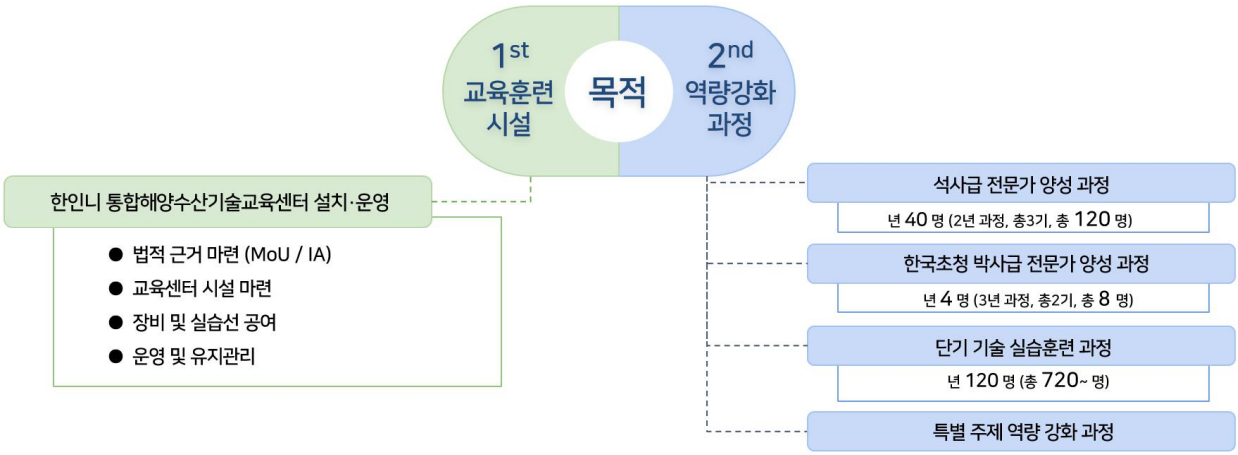
인니 그린스마트 통합 해양수산기술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사업 목적

-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한 연안재해의 피해저감과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해 통합 해 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설립 및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 과학기술 역량강화

▶ 사업 내용

- 인니 식량조정부(구, 해양투자조정부) 및 관계기관(해양수산인력개발청 등)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센터설립, 기자재 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통합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면적 703.74㎡)
- 인니 지역별 석사급 전문가 양성과정 설계 및 운영(총120명)
- 한국초청 박사급 전문가 양성과정 설계 및 운영(총8명)
- 조사 훈련을 위한 해양실습선(12톤급 이상 5척), 해양조사 및 분석 장비 지원



교육훈련시설 조성 및 역량강화과정 운영

▶ 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2023~2028년(총 6년)
- 사업비: 75억 원(총액)

▶ 추진 현황(`23.10~`25.3)

[현지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인니 해양수산인력개발청(BPPSDMKP)과 MOU 체결(‘23.6.6/사업전)
- 지역별 교육거점 기관 확보를 위한 인니 대학들과(보고르대, 하사누딘대, 파티무라대, 우다야나대, 디포느고로대, 가자마다대)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간 MOU 체결(`22.7~`23.7/사업전)
- 본 ODA사업 참여 및 지원 공동선언식 개최(`23.8/사업전)
- 해수부 및 인니관계기관과 착수보고회 개최(`23.11)
- 제1, 2, 3차 인니관계기관 운영위원회 개최(`24.2, `24.8, `25.2)
- 이행약정서(IA) 서명식 개최(`24.6)

[통합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시설 공간조성 계획 수립(`24.1~4)
-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시설 조성 및 1차 완공(`24.5~8)
-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개소기념식 개최(`25.2)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 과정]

- 석사급 해양전문가 양성과정 장학생 선발 및 각 대학 학장급 협의(`23.10~12)
- 인니 정책결정자 및 우수학생 한국방문 프로그램 개최(`24.6)
- 석사급 장학생 학업성과 발표 세미나 개최(`24.8)
- 석사급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실무위원회 개최(`24.12)

[한국초청 박사급 전문가 양성 과정]

- 한국초청 박사급 양성과정 장학생 선발(`23.10~12)
- 부경대 수산과학대 박사과정 2명 입학(`24.3)
- 박사급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추가 학생선발 협의회 개최(`25.1)

[해양조사장비 활용 단기기술교육 및 특별 주제 역량강화 과정]

- 특별주제 역량강화과정 개최; 고정익드론 활용, 분광스펙트럼 분석(`24.1,2)
- 제1차년도 해양조사장비 활용 실습교육과정 개최(`24.7)
- 제2차년도 1차 해양조사장비 활용 실습교육과정 개최(`25.2)

▶ 관련사진

[해양조사장비 활용 단기기술교육 및 특별 주제 역량강화 과정]

1차년도 해양조사장비 실습교육과정(`24.7.15~25)

고정익드론 활용 특별주제과정(`24.1.22~26)

분광스펙트럼 분석 특별주제과정(`24.2.19~22)

제2차년도 1차 해양조사장비 실습교육과정(`25.2.24~27)

▶ 향후계획(2025.4~2025.8)

- 특별주제 역량강화과정 개최('25.4)
- 제4차 관계기관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25.4)
- 인니 정책입안자 및 삭사급 전문가 양성과정 우수학생 대상 한국방문프로그램 개최(`25.5)
- 제2차년도 2차 해양조사장비 활용 실습교육과정 개최(`25.7)
- 12톤급 해양조사실습선 및 해양조사 실습장비 구매 및 공여(`25.8)
- 해양수산기술 교육센터 시설 확장 조성(`25.8)
- 석사급 전문가 양성과정 학업성과 발표 세미나 개최(`25.8)
- 제2차년도 현지 사업수행 보고회 개최(`25.8)

▶ 기대효과

- ASEAN 협력 핵심국가인 인니와의 중장기적이고 우호적인 해양협력 강화를 위해 친한(親韓)인사 양성에 효과적인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
- 한인니해양수산기술훈련센터 시설은 한국ODA 사업 및 국제 기구의 훈련프로그램을 공동 개최를 통해, 향후 아세안 거점 훈련센터로 확대
- 해양국가인 인니의 기후변화·연안재해 대응 능력 강화 및 해양교육체계 구축에 기여하여 한국 해양수산분야 영향력 확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한산 책임연구원
hansanpark@kiost.ac.kr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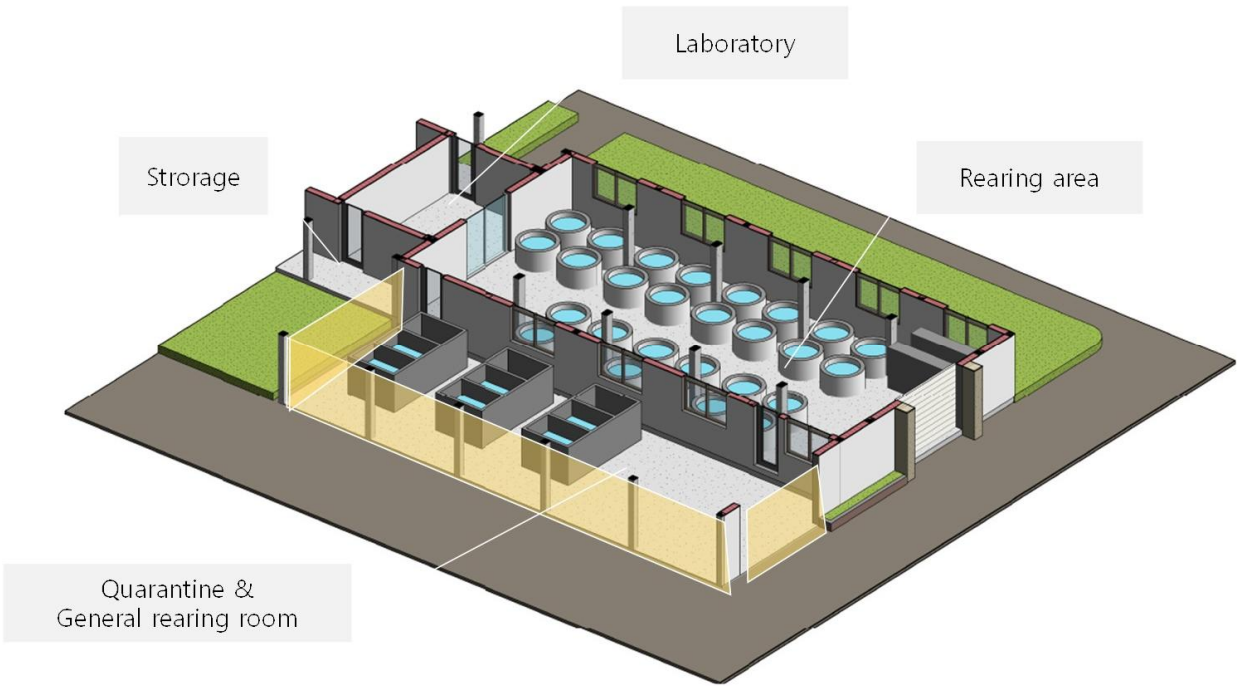
- 베트남 북동부 연안의 'Red river'와 'Day river'가 유입되는 갯벌 조간대(레드 델타, 삼각주)를 대상으로 한-베트남 수산양식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양식산업 전반의 소득향상 도모

▶ 사업 개요

- 베트남 북부 적강 삼각주 인근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기술 협력 및 지원
- 사업기간: 2022~2026년
- 사업비: 30억 원

▶ 사업 대상

- 베트남 RIA1(Research Institute for Aquaculture No.1) 본원 및 갓빠센터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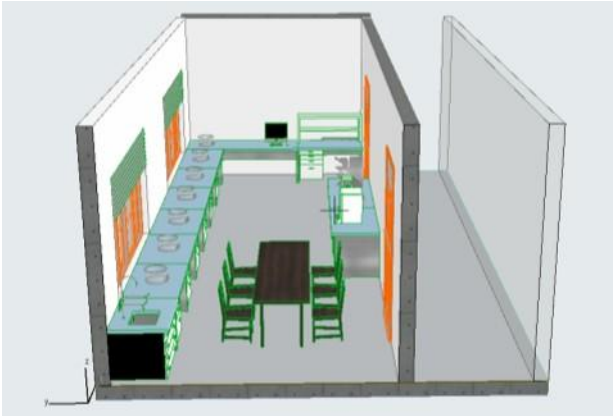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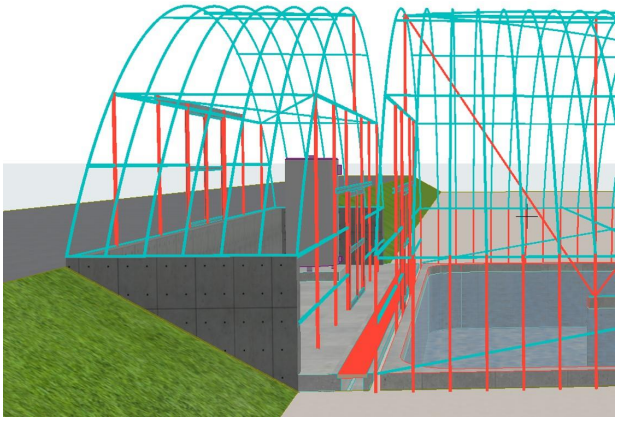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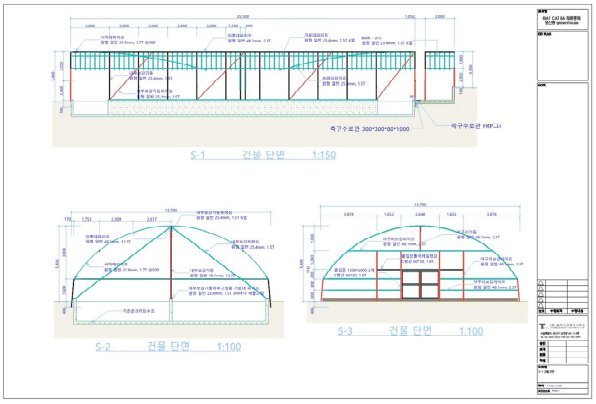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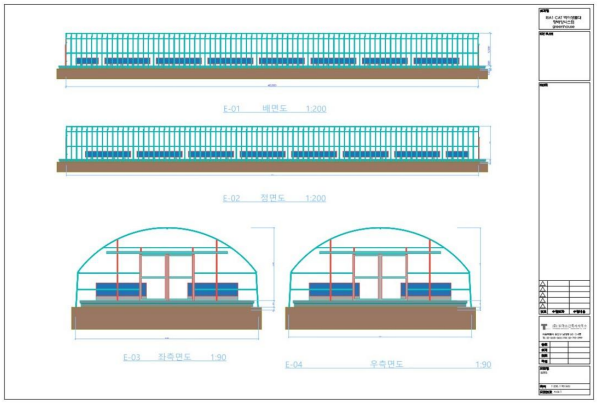
RIA1 본원 시설 개선 도면

▶ 추진현황(2023~2024년)

- 23년 4월 : 한·베트남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 ROD 체결
- 24년 8월 : 베트남 정부 사업승인
- 24년 8월~현재 : 베트남 현지 시설개선 공사 및 현지 역량강화 교육

▶ 관련사진

현지 조사 및 공동연구 선상 협의

갓빠센터 시설 개선 도면

▶ 향후계획(2025~2026년)

- 2025~2026년 : 종자생산 기설 개선, 패류 생산성 향상방안 마련, 역량강화

▶ 기대효과

- 맹그로브 숲 조성을 통한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 및 환경 조성과 해안선 보호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기반 시설 보호
-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 배후지 내 양식장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 생산성 향상과 베트남 북부지역 갯벌 양식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방안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 맹그로브 숲조성 사업지역 배후지 내 갯벌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방안 마련 및 양식대상 생물의 중간 종묘 육성장을 통한 양식생산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조성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김정현 해양수산연구사
kimjh0403@korea.kr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사업(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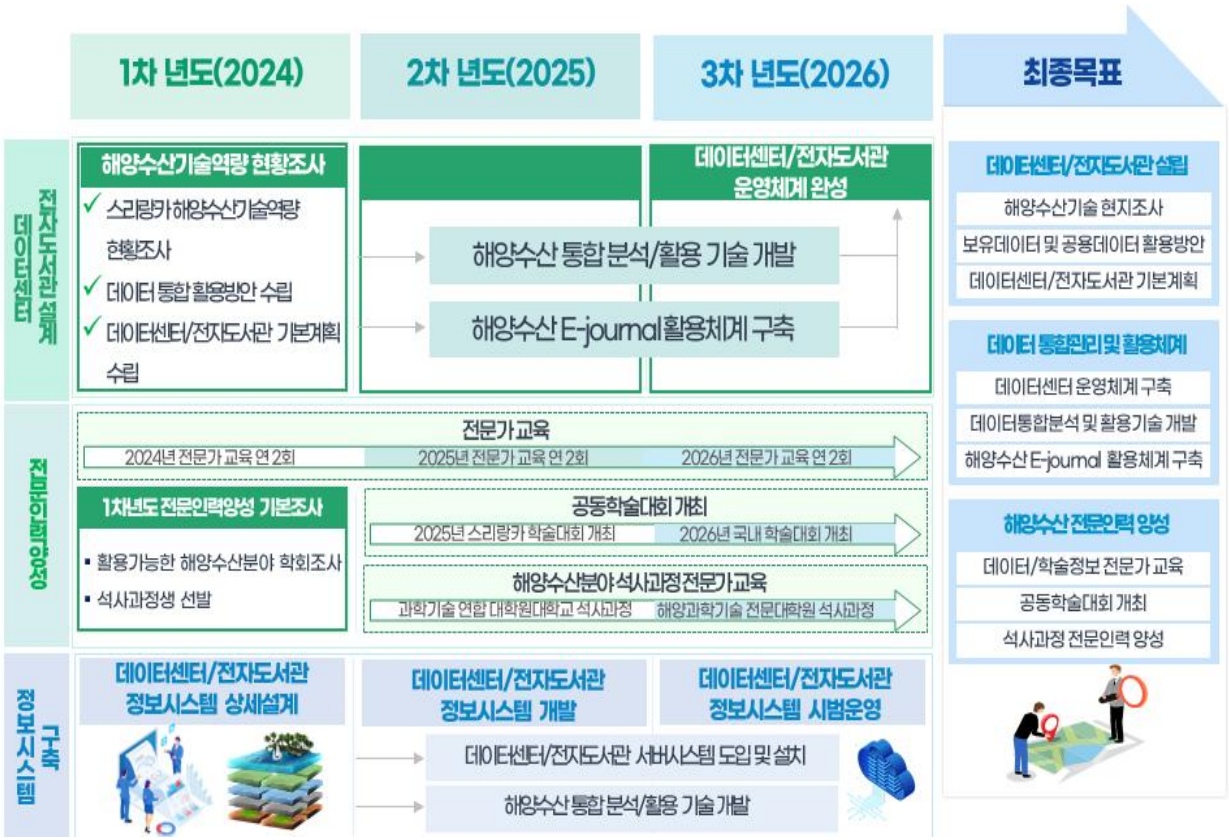
- 스리랑카 데이터 관리체계 및 디지털정보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선진국의 정보격차 감소 해양과학 연구능력 향상

▶ 사업 개요

-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디지털 관리·업데이트 등 분야 정보 전문가 양성
- 사업기간: 2024~2026년
- 사업비: 60억 원

▶ 사업 대상

- 스리랑카 해양수산자원 연구소(NARA: National Aquatic Resources Research & Development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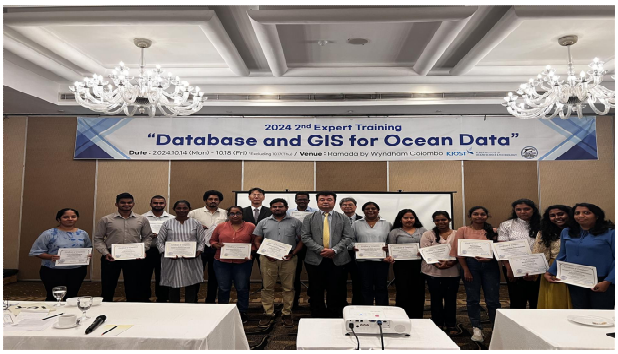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설립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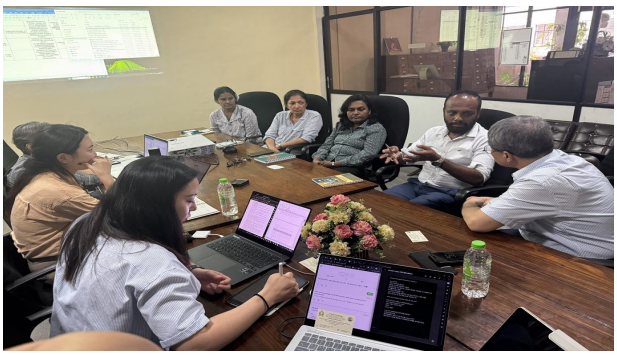
▶ 추진현황(2024 – 2025년)

- 24.6월: 사업 착수
- 24.8월: 사업 Kick-off 미팅 / 현지조사를 통한 해양수산역략 파악 및 협력방안 논의
- 24.10월: 1차 현지 전문교육(Introduction to Ocean Data Management) 수행
  2차 현지 전문교육(Database and GIS for Ocean Data) 수행
- 24.12월: NARA 연구자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실무자 회의 수행
- 25.2월: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상세설계(안) 실무자 검토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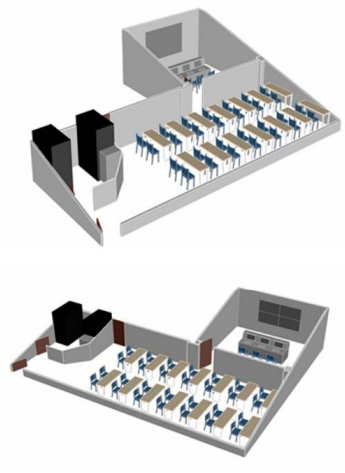
스리랑카 1차 및 2차 현지 전문가 교육 수행



NARA 연구자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실무 협의 수행

▶ 향후계획(2025년)

- 5월: 3차 현지 전문교육(GIS Spatial Analysis) 수행
- 6월: 4차 현지 전문교육(Biological Data Management) 수행
- 7월: 데이터센터 현장 공간 HW 도입 및 구축 수행



해양수산 데이터센터 및 전자도서관 조감도

▶ 기대효과

- (국제협력강화)해양수산과학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인도양 권역 해양자원 공동개발 및 인도양 해양 관측데이터공유 등 지속적인 협력 추진 기반 조성
- (기술역량강화)선진국과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ICT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수산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
- (경제적성과)한국의 선진 해양과학기술과 IT 기술 등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과 인력의 스리랑카 진출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과학기술 위상재고) IT 인프라 및 전문인력 프로그램 등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역량 전수에 따른 국제적 국가위상 재고
- (외교적 성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위상강화 및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기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태훈 연구원
thkim00@kiost.ac.kr

05 주요 행사

기추진 행사

2026년 해양수산부 부처 ODA 예비사업 설명회

▸ 행사 배경 및 목적

- ODA KOREA에 등록된 2026년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으로 제안된 예비 사업들이 실제 사업 제안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사전 보완 및 사업간 조율 통해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행사 일시/ 장소 : 2021년 12월 및 2025년 1월 중 3회/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영상 병행)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2026년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 제안 예정 관계자, KMI ODA센터 연구진 등 약 30여 명

▸ 주요 내용

- 제안 사업별 사업 소개 및 준비 현황 공유
- 제안 사업 관련 질의응답 및 보완 사항 논의
- 제안 사업간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사항 협의

▸ 기대효과

- 제안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
-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한 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조정
- 준비 미비한 사업에 대한 보완 방향 제시로 사업 완성도 제고
-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 기반 구축

국제개발협력센터 전혜은 센터장, 임해주 연구원
jhaeeun!@kmi.re.kr

2026년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 시행계획 작성 지침 설명회

▸ 행사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 제안 예정 관계자들의 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발생 가능한 혼선 최소화 필요성 대두
- 변경된 지침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제안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 안내를 통해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 2026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적용 앞두고 지침 내용이 전반적으로 변경

▸ 행사 일시/ 장소 : 2025년 2월 19일(수)/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영상 병행)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2026년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 제안 예정 관계자, KMI ODA센터 연구진 등 약 30여 명

▸ 주요 내용

- 외교부 전달 요청 사항 안내
- 2026년 지침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부적격 심의 의견 예시 공유
- 사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 기대효과

- 관계자들의 변경된 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계획 작성 시 발생 가능한 혼선 최소화
- 부적격 심의 사례 공유함으로써 사업 시행 계획 완성도 향상 제고
- 사업 제안 시 유의 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원활한 심의 과정 지원
- 26년 사업 제안 업무(지침 배포, 제안 서류 접수 및 안내 등) 지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임해주 연구원, 임예섭 연구원
hj@kmi.re.kr, yslim42@kmi.re.kr

해양수산 ODA 리포트는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국내외 ODA 정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기구, 해외정부의 동향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전혜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허재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김주형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한다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임해주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김양희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임예섭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이보람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사무원
염승식 국제개발협력센터 사무원

감수

한덕훈 대외협력사업부장

해양수산
ODA 리포트

발 행 일 2025년 03월 28일
발 행 인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용당캠퍼스 한미르관 12층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
TEL. 051-797-4904 FAX. 051-797-4415
편집디자인 애드원플러스 TEL. 070-4390-38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